

金火交易에 관한 考察

尹 暢 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內容提要(Abstract)

通過對“金火交易”進行多方面的考察,最後得出了如下結論.

1. “金火交易”之象最早見於洛書,是通過將4·9金配置於南方,將2·7火配置於北方而形成的,此與河圖是有所差異的.

2. 對“金火交易”,大體上可以劃分為五個方面來進行說明.

第一,“金火交易”意味着春夏之季被分裂的木火之氣運,到了秋季被金火之氣運從外收斂而至於統一的情形,即象徵着生命的完成.特別在夏季和秋季,因火克金的原理,金火兩種氣運互有交流,如果完成了“金火交易”的過程,就會由天地否之象轉化為地天泰之象,而在周易里位居第四十九位的革卦,其中就含有“金火交易”之象.

第二,“金火交易”意味着在夏季雖然火起着主導性作用,但在其內面金爲了包容其火早已開始了隱密的作用,而進入秋季則火又轉化為無根之火相火協助統一之完成,也就是說夏季有火金同時發揮作用,秋季則又有金火同時發揮作用,這都是因爲統一陽氣是宇宙變化之目的所在的緣故.

第三,“金火交易”的目的在於統一生命,所以宇宙的結構,自然界的存在情形,以及人體結構的存在方式,都是按金包火的模式形成,從而能够配合“金火交易”的作用.

第四,“金火交易”是屬陰的金水與屬陽的木火之間的交易,當木火發揮作用時,爲抑制過度的分裂就由金水同時發揮作用,木火就成爲以金水統一生命的對象,即意味着木火作用時有金水作用同行,金水作用時則是要包容木火,這兩個作用是具有同時性的.

第五,形由金水而成,神由木火而就,所以金水與木火的交易即是形神之間的交易,有形就有神在其內,而神又以形爲必要前提,即意味着形神同時存在的特性.

3. 繼伏羲八卦圖與文王八卦圖之後,於一八八一年繪制而成的金一夫先生的正易八卦圖,是易與象數的極學,它乃毫無遺漏地體現了金火交易之象的後天八卦圖.

1. 緒 論

金火交易이란 말이 보편화 된 것은 우리 나라에서 金一夫 先生의 正易이 나온 이후부터 라고 생각된다. 河圖에서의 남방에 있던 2·7 火와 서방에 있던 4·9금이 洛書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어 남방에 4·9금이 자리하고 서방에 2·7火가 자리를 하여 金火交易의 象이 제시된 것은 4천여년 전이지만 金火交易이란 용

어가 古今의 中國책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河圖와 洛書는 陰陽·五行의 본질과 변화원리에 대한 근본 바탕이다. 그리고 역대의 聖哲들은 이에 대하여 수많은 연구결과를 후세에 남겨 주었다. 朱子는 河圖·洛書를 정의하기를 “河圖는 다섯 개의 生數가 다섯 개의 成數를 통솔하여 함께 같은 방위에 처해 대개 그 전체를 들어 사람에게 보여주어 常數의 本體를

말하고 있고, 洛書는 다섯 개의 奇數가 네 개의 偶數를 통솔하여 각각의 장소에 거하니 대개 陽을 위주로 하여 陰을 통솔하여 그 變數의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河圖는 以五生數로 統五成數而同處其方하니 蓋揭其全 以示人하야 而道其常數之體也오 洛書는 以五奇數로 統四偶數而各居其所하니 蓋主於陽 以統陰하야 而肇其變數之用也라)”¹⁾ 라 하였고, 崔碩基(1904~1987, 字東洲, 慶北永川人)는 이를 간단하게 “河圖十數者는 陰陽生成之體也오 洛書九數者는 陰陽變化之用也”²⁾라고 요약하였다. 河圖·洛書에 대해서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내리고 더 나아가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만 이상하리 만치 洛書의 金火交易에 대해서는 그 근본을 설명하고 있는 서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金一夫 先生은 正易의 金火四頌에서 “四九二七金火門은 古人意思不到處라”³⁾라고 하시어 一夫先生 이전에는 金火交易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 없었다고 과감하게 단정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千古의 神祕이며 眞理의 玄關에 대해 筆者가 손을 대는 것은 외람되고 두려운 감도 없지만 一夫의 正易과 韓東錫先生의 宇宙變化의 原理를 통해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를 斯界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金火交易의 다섯 가지 舍意

1. 金火交易은 가을에 生命이 完成되고 統一됨을 의미한다.

1) 胡廣 등, 周易大全(元), 대전 學民文化社, 1990, p40.

2) 崔碩基, 河洛演義, 서울, 驪江出版社, 1993, p7.

3) 姜炳錫懸吐註解, 金火正易, 서울, 新易學會, 1998, p73.

1) 金火交易의 定義

河圖에서 1水, 2火, 3木, 4金, 5土는 만물생성의 본질을 기준으로 순서를 말한 것이고, 相生의 순서로 木火土金水라고 말하는 것은 春夏秋冬之氣의 運行順序로 말하는 것이다. 天地는 一氣의 끊임없는 순환인데 이것을 陰陽으로 나누면 陽의 과정에서 分裂하고 陰의 과정에서 統一하는 陽分陰合의 과정이요, 이를 五行의 마디로 나누면 木의 과정(즉 봄의 과정)에서 生命과 陽氣가 發生하고, 火의 과정(즉 여름의 과정)에서 分散成長하고, 土의 과정(즉 長夏의 과정)에서 成長을 中止시켜 收斂으로 매개(이를 化라고 한다)하고, 金의 과정(즉 가을의 과정)에서 生命과 陽氣를 收斂하여 統一을 始作하고, 水의 과정에서 陽氣를 統一하여 生命을 完成하는 것이다. 이러한 一週期的 循環을 天道에서는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의 10단계로 나타내고 地理에서는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의 12과정으로 나타낸다. 이는 五行의 과정을 더욱 세분화 시켜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辰戌丑未의 土化作用과 寅申의 相火作用, 金火交易作用, 生命의 완성인 戌土의 歸空과 十一成道作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韓東錫은 “우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변화작용을 지칭하는 것이요 우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水火(坎離)정신의 動靜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즉 그것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즉 무엇이 우주를 動靜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주운동의 요인은 土化作用이 相火를 거쳐 金火交易을 완성하려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⁴⁾ 라고 하였고, 또 “우주

4)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大原出版社, 2001, p213.

의 변화란 것은 土化作用으로써 본체가 되고 相火作用으로써 객체를 이루고 金火交易作用에 의하여 완성된다” 5) 고 하여 金火交易이 生命을 창조하는 궁극의 과정임을 밝히고 있다. 生命은 陽의 과정에서 律動하고 陰의 과정에서 呂靜하며 木火의 과정에서는 分裂하고 金水의 과정에서는 收斂되고 統一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韓東錫은 12地支의 德性を 원용하여 10未土의 자리에서 午火의 分裂을 無化시켜 統一의 발판을 마련하고(土化作用) 申相火로써 火의 勢力을 無根化시켜(相火作用) 酉의 과정에서 收斂하고 戌의 과정에서 完成(金火交易의 完成)한다고 풀어서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五行의 運行之氣는 木火土金水이다. 그런데 火金이라 하지 않고 金火라고 한 것은 벌써 수렴하는 金氣가 分裂하는 火氣를 포위하여 分裂되었던 陽氣를 압축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火는 分散과 分裂을 爲主로 하는 기운으로 裡陽이 表面으로 확장하려는 遠心的, 外向的 逆行운동을 하고, 金은 收斂과 統一을 爲主로 하는 기운으로 表陽이 裡面으로 잠복하려는 求心的, 內向的 順行운동을 한다. 이러한 金의 과정을 지나 生命이 완전히 완성되고 통일되는 水의 과정으로 進入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주의 변화는 시간의 변화이고 시간의 변화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실현되는 시간이 가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부가 봄에 씨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는 목적은 가을이 되어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는 과정이 金火交易의 완성이며 따라서 가을은 우주의 변화가 완성되는 시간이며 천지의 조화가 완성되는 결실의 시간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도 수행을 하거나 정신을 안정시

켜 분열된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 金火交易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火克金과 金火交易

가을의 金火交易의 시간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0未土의 과정을 통해 火生土, 土生金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이치도 들어 있지만 土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조화의 이면이고 실제적으로는 火克金하는 相克의 투쟁과 逆境이 가로 놓여져 있다. 春夏秋冬의 사계절에서 오직 여름과 가을의 과정에서만 五行의 상극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는 주역의 64괘 중에서 金火交易을 상징하는 괘가 49번째 위치하는 澤火革卦인데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革卦는 河圖55와 洛書45의 合數인 100에서 절반인 50으로 進入하는 數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선천(전반기 陽의 과정)의 과정을 마치고 후천(후반기 陰과정)으로 들어가는 직전의 괘이다. 이는 革의 互卦가 후천을 시작하는 天風姤인데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革卦의 上卦 兌(☱)괘는 五行으로 金에 속하고 下卦 離(☲)괘는 火에 속하여 火克金의 관계가 성립하며 또 澤中有火의 象으로 보더라도 水克火의 관계가 되니 이러한 相剋의 변화 속에서 變革을 이루고 後天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우리는 여름에서 가을로의 전환에서 10未土의 相生的 매개와 火克金의 相剋의 투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한다. 1주기의 순환과정에서 土가 作用하는 곳은 四維位이지만 萬物의 生死와 관련되어 作用하는 곳은 方位의 東北間과 西南間이다. 東北間은 겨울과 봄의 사이로 겨울에 休息하였던 萬物이 생을 시작하는 곳인데 이곳의 土는 자신이 冬節의 水를 克하여 水生木으로 生命을 탈출시키고 西南間은 여름과 가을의 사이로 여름에 번성하였던 만물의 死가 시작되는 곳이지만 土의 매개에 의하여 火克金의 金火交易을 다리 놓아

5) 上揭書, p214.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金火交易도 협의의 金火交易과 광의의 金火交易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협의의 金火交易은 가을이 되어 수렴하는 金氣運이 裡面에 火의 陽氣를 포용한 상을 말하는 것이고 광의의 金火交易은 10未土의 과정에서부터 생명이 戊土로 歸空하는 전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어쨌든 金火交易은 分裂하던 기운과 수렴하는 기운이 만나 일대 투쟁을 벌이는 곳으로 살벌한 곳이며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으로 金과 火의 대충돌에 이어서 통일로 들어가는 가는 것이다.

이를 天干에서 보면 辛金이 辛水로 변하는 象인데 辛9金이 맞은 편의 丙7火의 대화작용을 받아 $9+7=16$ 이 되어 10土의 中和性을 매개로 수축하는 6水로 통일되는 모습이고 地支에서 보면 방위의 申金이 변화의 申相火와 自化作用을 하여 水를 生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해 申은 방위적으로 9金이지만 변화로서는 7火이다. 申은 서방에 위치하므로 7火가 9金에 의해 포위당하는 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만일 동방에 이러한 自化의 象이 있다면 九金이 七火에 의하여 늘어나는 象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數가 $9+7=16$ 이다. 그런즉 이것은 十土와 6水가 陽을 포위하는 象이 된다⁶⁾. 金火의 相爭은 무형의 土를 생산하여 後天으로 進入하는데 革卦에서는 이를 인사업적으로 믿음(孚)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金火交易이 상극의 과정을 통해 생명이 統一되는 象은 人事의으로 볼 때 인간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극복하면서 여지에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이를 매개로 삼아 생명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없는 천지의 가르침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3) 金火交易과 地天泰

一夫는 正易의 化翁親視監化事에서 “嗚呼

라. 金火交易하니 否往泰來로다.”⁷⁾라고 하셨다. 이는 先天의 시대에서 後天의 시대로 바뀌게 되면 否卦의 세상에서 泰卦의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先天은 否卦가 작용하고 後天은 泰卦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五行의 원리로 볼 때 木·火가 작용하는 전반기는 陽氣가 밖으로 뿜어나가므로 陽外陰內의 象을 이루고 金·火가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후반기는 陽氣가 내부적으로 수렴되면서 표면이 딱딱해져서 陰外陽內하는 象을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陰外陽內의 모습이 바로 金火交易의 象이다. 陽外陰內를 代表하는 卦가 天地否卦이고 陰外陽內를 代表하는 卦가 地天泰卦이므로 金火交易의 象은 地天泰卦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를 河圖와 洛書의 원리에서 살펴보면 陽이 주도적으로 作用하여 相剋의 원리에 의해 發展하는 선천세상은 洛書의 원리와 부합되고 正陰正陽을 이루면서도 陰이 주도적으로 작용하며 相生의 원리에 의해 생명이 統一되는 후천세상은 河圖의 원리와 相合한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洛書를 先天에 배합하고 河圖를 후천에 배합한다. 그렇다면 과연 洛書에 天地否의 象이 있고 河圖에 地天泰의 象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玉齋胡氏는 河圖·洛書를 정의하기를 “河圖는 生數와 成數로 陰陽을 나누어 다섯 개의 生數의 陽(1·2·3·4·5)으로 다섯 개의 成數의 陰(6·7·8·9·10)을 統率하여 함께 같은 方位에 處하여 陽은 안에 있고 陰은 밖에 있어 生과 成이 相合을 이루니 交泰의 象이 된다.(1에서 10까지 10개의 數를 生數 다섯과 成數 다섯으로 陰陽으로 나눌 때, 體가 되고, 始原이 되는 生數는 陽이 되며 用이 되고 現象으로 나타나는 成數는 陰이 된다) 洛書는 奇數와 偶數로 陰陽을 나누어 다섯 개의 奇數의 陽으로써 네 개의 偶數의

6) 上揭書, p170.

7) 姜炳錫, 上揭書, p94.

陰을 統率하여 各各 그 處所에 居호되 陽은 正方に 있고 陰은 偏方に 있어 奇數와 偶數가 서로 나누어지니 尊卑의 자리가 된다.(1·3·5·7·9를 陽이라 하고 2·4·6·8·10을 陰이라 하는 것은 숫자 하나 하나에 重點을 두고서 外的인 作用으로 陰陽을 나눈 것이다.) (玉齋胡氏曰 河圖는 以生成으로 分陰陽하여 以五生數之陽으로 統五成數之陰而同處其方하여 陽內陰外하여 生成이 相合하니 交泰之義也오 洛書는 以奇偶로 分陰陽하여 以五奇數之陽으로 統四偶數之陰而各居其所하여 陽正陰偏하여 奇偶既分하니 尊卑之位也라.”⁸⁾ 하였다. 그는 河圖에 대해서 交泰之義라 하여 地天泰의 象이 있음을 곧바로 이야기하였고 洛書에 대해서는 비록 尊卑之位라고 직접 天地否의 象을 말하지 않았지만 陽正陰偏의 모습은 陽外陰內的 象에 가까우므로 天地否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국적으로 木·火가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봄·여름은 선천의 세상으로 洛書의 과정이며 상극의 과정이며 天地否의 원리가 작용하고, 金·火가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가을·겨울은 후천의 세상으로 河圖의 과정이며 상생의 과정이며 金火交易이 실현된 地天泰의 원리가 작용하는 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金火交易이 실현된 세상을 金一夫先生은 十一歸體詩에서 “火入金鄉金入火요 金入火鄉火入金을 火金火原天道다 誰遣龍華歲月今고.(火가 金의 고향로 들어가고 金이 火로 들어가며, 金이 火의 고향로 들어가고 火가 金으로 들어가는 도다. 先天의 火金이 後天의 金火로 交易하는 것이 원래의 하늘의 道이다. 金火가 交易한 後天의 龍華歲月 누가 이제야 보냈는가.)”⁹⁾라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는 十一歸體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0無極의 기운이 1太極으로 압축 통일된 後天의 세계가

龍華世界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며 바로 金火交易이 실현된 세상인 것이다.

2. 金火交易은 金火의 同時作用을 의미한다.

1) 理論的 배경

金火交易의 象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洛書이다. 河圖는 1·6수가 北方에, 2·7수가 南方에, 3·8수가 東方에 4·9수가 西方에, 5·10수가 中央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그 方位에서 그러한 기운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東·南·中央·西·北은 각각 봄, 여름, 장하, 가을, 겨울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 계절에 그 기운이 작용하고 있음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洛書에서 4·9수가 南方에, 그리고 2·7수가 西方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南方과 여름에 金기운이, 西方과 가을에 火기운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여름에 火와 金의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고 가을에 역시 金과 火의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河圖와 洛書의 數의 배열이 이와 같이 다른 이유에 대해 崔碩基는 “河圖者는 陰陽不易之正體也오 洛書者는 陰陽不測之變用也라.”¹⁰⁾하여 體用의 관계로 要述하고 있다.

그런데 왜 오직 南西方에서만 두 기운이 교류하고 있는가? 正易의 金火二頌에서 一夫先生은 “氣東北而固守하고 理西南而交通이라.”¹¹⁾고 하였다. 이는 氣가 東方과 北方에서는 서로 교류하지 않고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東北의 氣는 木과 水이다. 그런데 天地의 이치가 西方과 南方에서는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西南의 理는 金과 火이다. 즉 金과 火

8) 周易大全(元), 上揭書, p40~41.

9) 姜炳錫, 上揭書, p141.

10) 崔碩基 上揭書, p190.

11) 姜炳錫 上揭書, p67.

는 西方과 南方에서 서로 교류하여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의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등은 逆行이든 順行이든 같은 기운을 계승하고 있지만 여름과 가을은 반대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生長의 과정에서 成熟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turning point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매개하는 것은 10未土이다. 바로 火와 金은 이 10未土의 기운을 매개로 하여 서로 往來하며 交流할 수가 있는데, 이는 10未土가 모든 것을 包容하고 받아들이는 造化의 主人이기 때문이다.

둘째 겨울과 봄,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각각 水生木, 木生火, 金生水의 相生의 가운데 作用하고 있지만 여름과 가을 사이에는 火克金하여 유일하게 相剋의 기운이 作用하고 있다. 相生은 逆方向의 변화를 용납하지 않지만 相剋은 逆方向으로도 기운이 서로 상통하니, 이는 우리가 相剋에서 克我者의 기운이 弱하거나 被克者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반대로 相侮의 관계가 쉽게 성립하는 데서도 살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여름에 火가 작용할 때 裡面에서 金도 同時에 作用하고 가을에 金이 작용할 때 裡面에서 火도 同時에 作用하게 되는 것이다. 雙湖胡氏는 이러한 相剋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圖書의 數가 셋은 같고 둘은 다르니 그 가운데 居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지만 오직 西와 南 二方의 數가 서로 바뀌는 것은 金이 火位를 타고 火가 金鄉에 들어가 서로 克制하는 뜻이 들어 있으니 이는 造化에 있어 반드시 바뀌어야 할 理由이다. 二方의 數는 相克하는 모습을 띄고 있으니 二方이 바뀐 뒤에 河圖 左旋相生하고 洛書 右轉相克하는 것은 造化가 생이 없을 수도 없고 克이 또한 없을 수도 없는 것이니 생이 없으면 或 그칠 수가 있고 克이 없으면 또한 成就할 수가 없

는 것이다.(雙湖胡氏曰 圖書之數三同二異하니 其居中者는 不可易矣나 獨西南二方之數相易者는 則金乘火位하고 火入金鄉해야 有相克制之義焉이니 此造化所以必易이라 二方之數者는 正以成其相克之象也니 自二方既易之後에 圖則 左旋相生하고 書則右轉相克은 造化不可無生이오 亦不可無克이니 不生則或幾乎熄이오 不克이면 亦無以爲之成就也니라.”¹²⁾

셋째 朱子는 陽不可易而陰可易의 이론을 가지고 易位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이르기를 “河圖와 洛書에 있어 數와 位가 세 군데(北, 東, 中央)에서는 모두 같지만 두 군데(南, 西)에서 다르니 대개 陽(1·3·5)은 바뀔 수가 없고 陰(2·4)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니 成數가 비록 西南에서 陽을 이루지만 본래 根本인 陰에서 생했기 때문이다.(朱子曰 其數與位 皆三同而二異하니 蓋陽不可易而陰可易이니 成數는 雖 陽이나 固亦生之陰也니라)”¹³⁾라고 하였다.

넷째 雲莊劉氏(劉煥, 字晦伯, 宋代人)는 陽極主變說로 洛書의 易位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이르기를 “圖의 1·3·5·7·9는 모두 奇數니 陽이지만 1·3·5의 자리는 바뀌지 않는데 7·9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또한 天地의 사이에 陽은 動하여 變을 主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陽이 北과 東方에서 不動하고 西南에서 서로 바뀌는 것은 대개 北과 東은 陽이 始生하는 方位요 西와 南은 陽이 極盛하는 方位이기 때문이니 陽이 나아가기를 主하면 數도 또한 반드시 極에 까지 나아가 그런 뒤에 變하게 된다.(雲莊劉氏曰 圖之一三五七九는 皆 奇數니 陽也로대 而一三五之位는 不易이어늘 七九之位 易者는 亦以天地之間에 陽動主變故也라 然이나 陽이 於北東則不動하고 於西南則 互遷者는 蓋北東은 陽始生之方이오 西南은 陽 極盛之方이니 陽主進하면 數又必進於極而後에 變也라)”¹⁴⁾고 하였다.

12) 周易大全(元) 上揭書, p44.

13) 上揭書, p43.

2) 구체적 실례

우주의 목적은 가을에 金으로 分裂된 火氣를 統一하는 것이므로 우주는 주도면밀하게 火가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여름철부터 裡面에서 金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작용을 하여 火를 포위하는 준비작용을 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우주의 치밀함과 준비성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데, 이는 陽氣의 統一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翁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金一夫先生은 金火二頌에서 “理金火之互位하여 經天地之化權이라.”¹⁵⁾고 하였는데, 이는 金火交易을 통해 天地의 造化權을 經綸한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여름부터 金이 작용하고 있다는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름철의 가장 더운 때를 우리는 三伏이라고 부른다. 三伏은 三更 또는 庚伏이라고도 하는데, 夏至 후 세 번째 庚日을 初伏, 네 번째 庚日을 中伏이라 하고 立秋 후 첫 번째 庚日을 末伏이라고 한다. 中伏과 末伏 사이가 20일이 될 때가 있는데 이를 越伏이라고 하며 다른 때보다 여름의 더위가 오래 지속되는 해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金이 火氣에 녹아 降伏했다고 하기도 하고 隱伏하여 더위를 피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三伏 더위에 개고기를 먹는 풍속이 있다. 狗肉은 酸味를 띄고 있고 酸味는 肺金을 補하는 作用이 있다. 그래서 개고기를 많이 먹으면 金克木하여 눈이 나빠진다는 說도 있다. 伏날이 庚日이라는 것은 한창 더운 여름이지만 속에서 金기운이 꿈틀거리는 날이라는 것이고, 이날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金기운을 돌우어 장차 다가올 가을에 火氣를 포위하려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즉 金火交易의 준비

를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十二地支의 巳午未는 火의 과정이다. 그런데 巳午未에는 10土를 거쳐 金으로 나아가는 象이 裡面에 모두 드리워져 있다. 巳는 자체가 2火이고 변화할 때는 8木이 되어 종합적인 모습은 2+8=10이 되어 土의 象을 띤다. 이는 未에서 土가 작용을 하지만 그 시작의 象은 巳에서부터 나타나므로 韓東錫은 金火交易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午는 음력 5월 한여름 철의 地支로 方位로써 7火이고 변화로써도 7火이다. 이의 종합적인 모습은 7+7=14가 되어 10土와 四金이 共棲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음력 5월의 한여름 철은 겉으로는 무한 分裂이 행해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10未土를 매개로 하여 4金으로 통일을 시작하려는 金의 견제 모습이 숨어 있다.

未는 여름철인 巳午未의 끝인데 역시 午와 같이 自化的 견제를 받고 있다. 즉 未는 方位와 變化의 數가 각각 10으로 그 數를 더하면 10+10=20이 된다. 그런데 자연수는 19에서 끝나고 20은 虛가 된다. 따라서 실제 작용은 19가 하는데 19는 10+9로 10土와 9金의 象이 된다. 즉 未土는 分열인 火의 極이며 통일의 始初가 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巳午未의 火는 金火交易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¹⁶⁾

셋째 河圖의 南方 2·7火는 여름철에 작용하는 기운이다. 그런데 이를 더하면 9가 되어 여름철 기운의 종합적인 모습은 金을 창조하는 象이 들어 있다. 또 西方의 4·9金을 더하면 13이 되는데 이는 10土의 과정을 거쳐 생명을 통일하고 보니까 바로 봄에 分裂을 시작하던 陽氣였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洛書에서 南方에 四·九金이 있고 西方에 二·七火가 있는 것을 漢字의 象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金火交易의 의도가 더욱 확연히 들어 나는데 역시 陽氣의 統一이 그 목적이다.

14) 周易大全(元) 上揭書, p44.

15) 姜炳錫 上揭書, p67.

16) 韓東錫 上揭書, pp168~169.

‘四’字는 종위종팔(從口從八)로 되어 있는데 口字는 囿字의 古字이다. 따라서 四字속에는 八이라는 쪼가리는 (분열하는) 성질을 포위하고 있으니 金의 象이고, ‘九’字는 종을종별(從乙從ノ)로 乙字는 屈의 뜻이고 ‘ノ’은 陽의 발전을 의미하니 ‘九’字에는 ‘ノ’이라는 陽이 발전하려고 하지만 乙의 屈하는 성질에 의해 발전이 정지되어 있는 象이다. 그래서 字典에서 ‘九’字를 合也, 聚也라고 하였다.

西南方에 있는 二, 西方의 七도 二가 七을 포장하려는 뜻이다. ‘二’字는 ‘一’字가 팽창해서 된 것으로 二는 항상 一로 수축하려는 모습이 있고, ‘七’字는 ‘十’字가 아직 미완성된 象으로 ‘十’字이전의 상태이다. 즉 ‘十’字의 縱劃이 곧게 내려가야 하는데 곧게 못 내려가고 구부러진 것은 十未土로 統一을 시작하기 전 단계로써 七도 역시 統一을 지향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¹⁷⁾

3. 金火交易은 生命의 구조를 나타낸다.

洛書에서 4·9금이 제일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金이 제일 위에 위치하고 제일 밖에 위치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이는 우주의 眞相이란 金이 들어와서 불을 포위하는 것인데 自然은 주도면밀하게 모든 사물의 조적이 金이 火를 싸고 있는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生命을 통일하는 金火交易이 워낙 중요하므로 자연의 존재모습이 金이 火를 싸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金火交易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를 먼저 遠取諸物해서 보면 지구라는 火土合德한 存在를 하늘이 둘러싸고 있는데 하늘은 乾으로 金에 속한다. 자연계의 모든 만물은 딱딱한 形質이 부드럽고 연약한 것을 밖에

서 싸고 있다. 딱딱한 것은 金水로 대표되고 부드러운 것은 木火로 대표된다.

모든 동물은 두꺼운 피부가죽이 밖에서 싸고 있는데 조개, 소라 등의 해산물 등은 모두 단단한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고, 거북이, 자라 등도 딱딱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다.

다시 近取諸身해서 보면 肺는 金에 속하고 主皮毛하는데 우리의 몸은 역시 金에 속하는 皮毛가 제일 밖에서 싸고 있다. 인체에서 제일 윗쪽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는 딱딱한 두개골과 두피 및 모발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데 두개골·두피·모발 등은 金에 속하니 역시 洛書에서처럼 金이 제일 꼭대기에서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장부의 모습을 보면 金에 속하는 肺가 火에 속하는 心을 싸서 제일 上部에 위치해 있고, 金에 속하는 大腸이 火에 속하는 小腸을 에워싸서 포위하고 있으며, 혈관의 구조도 쇠처럼 탄력과 견고한 성질을 가진 혈관이 혈액을 내부에 싸고 있다.

우리가 손톱·발톱의 생성도 金火交易의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河圖에서 南方 2·7 火를 더하면 9금이 되고, 午火를 본질과 변화의 수를 더하면 7+7=14가 되어 火의 분열은 자체적으로 金을 생하는 모습이 있음을 살펴 보았듯이 손가락·발가락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기운이 가장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열의 극에서는 자연스럽게 金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손톱과 발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4. 金火交易은 木火와 金水の 同時作用을 의미한다.

張介賓은 類經圖翼·陰陽體象에서 “邵子曰 天依形하고 地附氣하며 氣以造形하고 形以寓氣”라 하고 또 “陰根於陽하고 陽根於陰하니

17) 韓東錫 上揭書, pp178~180.

陰陽相合이라야 萬象乃生” 이라고 하여 形과 氣는 분리될 수 없고 陰陽이 相合해야만 萬物이 生한다고 하였다.¹⁸⁾

우리가 河圖를 보면 北東쪽에서는 陽이 內部에 있고 陰이 外部에 있다. 이는 六과 八의 陰이 形을 이루어 一과 三의 陽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一과 三의 陽氣가 發展하는데 六과 八의 陰形이 東반하면서 과도한 發散을 抑制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南西쪽에서 陰이 內部에 있고 陽이 外部에 있다. 이는 分裂된 陽을 內部의 陰이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陰과 陽은 同時에 作用하면서 변화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五行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甲乙木·丙丁火의 木火가 作用할 때에 運은 甲土·乙金·丙水·丁木의 金水기운이 東반하고 있으며, 寅卯木·辰土가 作用할 때에 寅相火·卯金·辰水가 作用하여 역시 木火가 주도적으로 作用할 때 金水 기운이 東반하고 있는데 金火交易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巳亥厥陰風木·子午少陰君火·丑未太陰濕의 과정을 보면 木火土의 分裂과정이지만 厥陰·少陰·太陰의 三陰이 東반하고 있으며, 寅申少陽相火·卯酉陽明燥金·辰戌太陽寒水의 과정은 相火·金水의 과정이지만 少陽·陽明·太陽의 三陽과 相合하고 있다. 또 肝이 本質적으로는 木이나 量的으로는 金이며 肺가 本質적으로는 金이나 量的으로는 木인데 이는 金과 木이 同棲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陰陽이 相合하고 金木과 水火가 同棲하고 있는 모습도 金火交易의 범주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木火가 作用하는 봄·여름에 金水기운이 東반하여 金火交易의 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째 陽氣의 과도한 分열을 억제하는 것이요, 둘째 장차 가을·겨울이 되어 金水로써 통일할려는 의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韓東錫은 물질의 化生은 金火交易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五運과 六氣의 變化 속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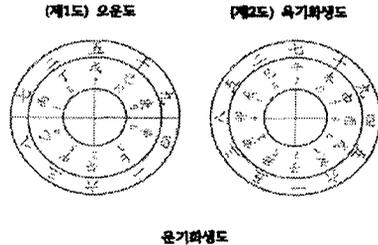


그림 1. 運氣化生圖

“제1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三甲木이 발하려고 하면 五甲土의 自화작용이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十己土의 對化作用도 여기에 가세하여 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三甲木이 발할 수 있는 甲運의 素地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은 乙八木의 化生過程으로 접어들게 되는바 우주의 운행(지구의 자전)은 乙八木의 位에 이르게 되면 乙金의 自화작용과 庚金의 對化作用으로 인하여 乙八木이 발할 수 있는 乙金運의 素地를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은 丙七火의 단계로 접어드는 바 여기에서는 丙一水의 自화작용과 辛壬水의 對化작용이 가세함으로써 丙七火가 발할 수 있는 素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를 다시 고찰하면 甲乙木의 化生은 甲乙丙의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이른바 3단계를 거친다는 말은 즉 甲土·乙金·丙水運의 3단계인 運의 自化作用과 己土·庚金·辛水運의 3단계인 運의 對化作用으로 인하여 甲乙木이라는 木氣가 形인 나무로 化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실제적인 木(나무)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木氣가 運行할 수 있는 因素, 즉 運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木運이 이른 인소가 목형을 이룰 수 있는 要素를 얻음으로써, 즉 木의 인

18)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p2~3.

소인 運과 요소인 氣가 결부됨으로써 완전히 木이 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木形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요소인 氣는 과연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이며, 또는 어떻게 運과 결합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六氣의 변화작용도 또한 運과 같다. 즉, 寅三木은 寅二火와 申七火의 自對化作用을 받고, 卯八木은 卯四金과 酉九金の 自對化作用을 받고, 辰五土는 辰一水와 戌六水の 自對化作用을 받음으로써 여기에서 氣가 寅(相火)·卯(金)·辰(水)의 形을 이루는 것이다(自對化關係는 運과 氣가 동일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화한 氣는 形을 이루는 요소가 되므로 여기에서 氣는 運으로 成象한 因素를 내포하고 내외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物로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物이 化成하는 것을 五六合德運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三八木은 왜 이와 같이 土金水合德으로써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여야 한다.

天干의 甲乙木이라고 하는 것은 木의 인소인 陽이 터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처음에 甲土로써 化하게 하고 그 다음은 金水로서 陽이 散失하지 않도록 運의 자체 준비를 하기 위함이고, 地支의 寅卯木은 천간인 甲乙木(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체 준비를 하는 甲乙木)을 포용하려는 것이므로 寅(相火)·卯(金)·辰(水)으로써 이것을 포위하는 것이다.

木이 한 개의 나무로서 생겨나는 것은 실로 이와 같은 運과 氣의 合德작용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주의 운동과정에서 만일 甲乙木이 생하려고 할 때에 甲乙丙의 自化하는 요인과 寅卯辰의 자화하는 요인이 없었다고 하면 物이 형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위에 己庚辛과 申酉戌의 대화작용이 또한 만일에 대비하고 있을수록 이것으로써 가히 만전이라고 할 것이다.”¹⁹⁾ 그는 물이 金水로 변화하기 위해

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변화요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땅속에서 金인 광물질과 水分등을 흡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5. 金火交易은 形神의 交易이다.

韓東錫은 形은 金水로써 이루어지고 神은 木火로써 이루어지는 것인즉 金火交易이란 것은 바로 形神의 交易이라고 하였다.²⁰⁾ 이는 木火와 金水가 同樁한다는 의미인 것이며 동시에 形과 神이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形과 神의 依存性を 이야기한 것으로 形이 없으면 神이 依託할 곳이 없고 神이 없으면 形은 作用을 할 수가 없으므로 둘은 不可分離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周易 繫辭에서 “形而上者를 謂之道요 形而下者를 謂之器라”²¹⁾하였는데 이는 有形은 器이고 無形은 道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朱子は “形而上者는 指理而言이오 形而下者는 指事物而言이니 事事物物에 皆有其理하니 事物은 可見而其理는 難知어니와 卽事卽物하면 便見得此理니 只是如此看아니라 又曰形而上底는 虛하니 渾是道理요 形而下底는 實하니 便是器라”²²⁾하였고 南軒張氏(1133~1180, 名은 栻. 字는 敬夫. 號는 南軒)는 “形而上者之道는 託於器而後에 行하고 形而下者之器는 得其道而無弊(형이 상의 道는 形器에 의탁한 뒤에 행해지고 형이하의 器는 그 道를 얻어야 없어지지 않는다)”²³⁾라고 하여 道氣의 不可離와 依存性を 이야기하고 있다.

위에서 上者를 謂之道요 下者를 謂之器라

19) 韓東錫 上揭書, pp293~294.

20) 韓東錫 上揭書, p256.

21) 周易大全(貞) 上揭書, p389.

22) 上揭書, p391.

23) 上揭書, p392.

하지 않고 形을 바탕으로 上下를 나눈 것은 道不離乎器하고 器不違乎道하는 一切性を 강조하여 道器의 不相離하면서도 分別이 있어 不相雜하는 특징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道を 理로 해석하는 것은 性理學者들의 특유의 논법이거나와 여기서 道는 정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쨌든 물질과 영혼, 육체와 정신은 分離할수 없는 존재로 한동석은 존재 = 정신 + 물질²⁴⁾이라는 공식을 주장하고 있다.

III. 金火正易圖(正易八卦圖) 해설.

正易八卦圖는 1881년 金一夫先生에 의하여 그려진 八卦圖로써 正易의 母體를 이루고 있다. 一夫先生은 54세 되시던 1879년(己卯年) 이후로 눈에 이상한 卦劃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점 커지고 擴大되어 나중에는 天地가 모두 이 낮모르는 八卦의 劃으로 뒤덮혀 보였다고 한다. 三年 동안을 이 異常한 卦圖를 응시한 선생은 어느날 문득 周易 說卦傳의 “神也者는 妙萬物而爲言者也라”의 下文에 “故水火相逮하며 雷風이 不相悖하며 山澤이 通氣然後야 能變化하여 既成萬物也하니라”라는 대목을 당하여 이제까지 眼前에 나타난 卦圖의 질서와 一毫差錯이 없이 符合함을 새삼 발견하고 이 卦圖를 그렸다고 한다.²⁵⁾

正易八卦圖에 나타난 金火交易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金火交易이 되면 分裂되었던 기운이 中心을 향해 수렴을 하게 되는데 正易八卦圖

는 伏羲八卦圖나 文王八卦圖와 달리 기운이 中心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 다시말해 求心의이다.

둘째 마주보는 中心軸의 成卦모습이 伏羲八卦圖는 天地否를 이루고 文王팔괘도가 水火未濟를 이루는데 반해 正易팔괘도는 地天泰를 이루고 있다. 泰는 象傳에서 “天地交而萬物이 通也며 上下交而其志同也라 內陽而外陰하며 內健而外順하며 內君子而外小人하니 君子道長하고 小人道小也”라고 한 後天時代를 상징한다.

셋째 복희팔괘도의 數가 1에서 8까지이고 文王팔괘도의 數가 1에서 9까지 인데 반해 正易팔괘도는 1에서 10까지 배열되어 河圖처럼 10土의 기운으로 생명이 統一되는 象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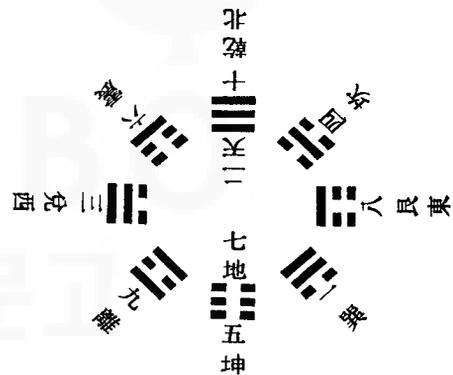


그림 2. 正易八卦圖

넷째 마주보는 卦가 正陰正陽을 이루고 마주보는 數가 1·6, 2·7, 3·8, 4·9, 5·10으로 역시 統一하는 河圖의 後天 象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東西와 南北의 관계가 艮土生兌金. 坤土生乾金의 相生을 이루어 土를 거쳐 생명이 統一되는 象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2天和 7地가 內部에 잠복하여 金火交易으로 火가 안으로 수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일곱째 陽方인 上部에는 坤을 中心으로 三女

24) 韓東錫 上揭書, p56.

25) 李正浩, 正易과 一夫,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pp321~322.

가 배열되어 있고 陰方인 下部에는 乾을 中心으로 三男이 배열되어 陰根於陽하고 陽根於陰하는 陰陽交易의 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韓東錫은 이러한 배치는 金火交易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震坎艮은 陽卦인데 陰方に 있고 巽離兌는 음괘인데 양방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六氣의 운행에 있어서 양방에는 三陰이 있고 음방에는 三陽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다만 여기에서 이것을 卦圖(卦圖)로써 옮겨놓은 것뿐이다. 그런즉 이것은 음양이 각각 본중말을 이루면서 질서정연하게 金火가 교역하는 象을 나타낸 것이다.”²⁶⁾라고 하였다.

여덟째 五十이 南北에 위치하여 선천의 지축경사에서 후천의 지축정립을 상징하고 있으며 用政하는 艮兌가 3+8 = 11 이 되어 10 무극이 1 태극으로 통일되는 태극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곧 金火交易의 완성을 의미한다. 또 艮兌合德으로 澤山咸卦를 이루어 二氣의 感應에 의해 “天地感而萬物이 化生하고 聖人이 感人心而天下和平”하는 後天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

韓東錫은 一夫의 正易은 易과 象數의 극치라고 하면서 正易八卦圖에 나타난 金火交易의 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문왕도를 살펴보면 右에서 左로 향하는 단 순히 상극하는 운동만을 하면서 南에서 金火가 교역하는 象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역도를 보면 卦(卦)의 방위마다 金火가 교역하는 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자세히 말하면 문왕도는 남과 서에서 2·7火와 4·9金이 서로 교환됨으로서 火가 金에 의하여 포위되는 象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正易圖는 동북에 四金 八木이 있는 바 金이 밑에 있고 木이 위에 있는 것은 木은 金을 쓰고서야 木(나무)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이므로 그러한 卦象(卦象)을

표시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이른바 木이 金에 뿌리를 박는 象을 표시하였다는 말은 그것이 바로 金火교역의 준비를 하고 있는 象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 동남에는 一水 七火가 있는 바 이것은 一水에 七火가 뿌리를 박고 있는 象이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七火의 분열이 亢龍(亢龍)이 되지 않도록 一水로써 제한하는 象이다. 그런즉 여기에도 또한 金火가 교역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象이 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채로운 것은 정남에 五坤地, 즉 곤토(坤土)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一水가 七火를 포위하려고 하는 바 그것은 五坤地의 작용이 선행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행도 같으면 土작용을 독립시켜서 표현할 것이지만 역(易)은 팔괘(즉, 팔방)로써 변화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七火는 정남에서는 아직 十土(순수한 土)가 이루어지지 못한 五土의 자격으로서 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서남에서는 九數와 三數가 작용하고 있는 바 이것은 동북에서 四數와 八數가 작용했던 것과 비슷하나 다른 점이 있다. 동북의 八木은 四金을 근거로 했지만 여기에서는 九金이 三木을 위에서 포위하고 있는 象이다. 그런즉 이것은 동북에 있어서처럼 金을 바탕으로 하여 木이 생하는 象이 아니고 반대로 木을 포위하면서 木의 생명을 만드는 象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金火교역이 이루어진 象인 것이다.

그 다음 서북에서는 六水와 二火가 작용하고 있는 바 이것은 六水로써 二火를 포위한 상이다. 癸水란 것은 陰火인즉 수중지화(水中之火)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坎(문왕도)의 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金火가 완전교역을 하고 또다시 木을 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남방의 一水 七火가 작용할 때에 있어서처럼 土가 정좌하고 있는

26) 韓東錫 上揭書, p260.

데 一水가 七火를 이룰 때에 土가 필요했던 것처럼 六水가 二火를 포위할 때에도 역시 土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十土가 작용한다는 말은 완성된 土가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완성된 土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오행원리로서 말하는 戌土인 것이다. 戌土는 원래 감(坎)을 형성하는 土였다. 그렇다면 이른바 乾十土라는 것은 태극을 형성하는 土인즉 이것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여기에서 정역원리는 상수학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²⁷⁾

IV. 結 論

金火交易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金火交易의 象이 처음 나타난 곳은 洛書로써 河圖와 달리 南方에 4·9金이 있고 西方에 2·7火가 배치된 象에서 비롯한다.

2. 金火交易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金火交易은 봄여름에 木火의 기운이分裂된 것이 가을이 되어 金,水의 기운으로分裂된 陽氣와 生命을 外部에서 싸서 통일한 모습으로 生命의 完成을 의미한다. 특히 여름과 가을은 火克金의 원리에 의해 두 가지 기운이 서로 교류하고 있으며, 金火交易을 이루면 天地否의 모습에서 地天泰의 모습으로 象이 바뀌며 周易에서는 49번째 革卦에 金火交易의 象이 담겨져 있다. 둘째, 金火交易은 여름철에 火가 주도적인 작용을 하지만 裡面에서 金이 火를 包容하기 위하여 은밀히 작용하며 가을

에 접어들면서 火가 無根之火인 相火로 바뀌어 統一을 도와주는 것으로 여름에 火金이 동시에 작용하고 가을에 金火가 동시에 작용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는 陽氣의 統一이 우주변화의 목적임으로 이처럼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金火交易은 生命을 統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주의 구조, 자연계의 존재 모습, 인체의 구조적인 존재모습이 모두 金이 火를 싸고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金火交易의 작용을 도와주고 있다. 넷째, 金火交易은 陰인 金水와 陽인 木火의 交易으로 木火가 작용할 때 과도한 分裂을 억제하기 위하여 金水가 동시에 동반작용하고 金수로 生命을 統一하는 대상이 木火가 되어, 木火가 作用할 때 金水가 동반하고 金水가 作用할 때 木火를 包容하는 동시작용의 의미가 있다. 다섯째, 形은 金수로써 이루어지고 神은 木화로써 이루어지므로 金水와 木火의 交易은 곧 形神의 交易인데 形이 있으면 神이 내재하고 神은 形을 필요로 하는 形神의 同時存在性을 의미한다.

3. 伏羲八卦圖와 文王八卦圖를 이어서 나온 1881년에 그려진 金一夫 先生의 正易八卦圖는 易과 象數의 극치로써 金火交易의 象을 遺漏 없이 나타내고 있는 후천팔괘도이다.

參考文獻

1. 姜炳錫縣吐註解, 金火正易, 서울, 新易學會, 1998.
2. 李正浩, 正易과 一夫,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4. 崔碩基, 河洛演義, 서울, 驪江出版社, 1993.
5.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大原出版社, 2001.
6. 胡廣等, 周易大全(元), 대전, 學民文化社, 1990.
7. 胡廣等, 周易大全(貞), 대전, 學民文化社, 1990.

27) 韓東錫 上揭書, p257~259.